

## 임실 일촌기업 협약체결로 여성일자리 기반강화

임실군-여성친화일촌기업 7개소와 협약 체결, 인턴채용지원금 최대 400만원 지원

임실군(군수 심만)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과 함께 관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나래식품(주)을 비롯해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정드림도인복지센터, 관촌원광수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이플영농조합법인, 무지개영농조합법인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군은 이번협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고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채용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구직자 우선 알선 및 사후관리, 인턴채용지원금 최대 400만원, 기업환경 개선지원 최대 500만원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인턴기간 3개월동안 월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장려금 8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자에게도 취업장려금 60만원이 지급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와함께,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재직여성 대상 직장문화 교육, ▲조직문화 개선

코칭등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회와 공인노무사의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참여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임실군은 이번협약을 계기로 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여성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심만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 완도군, 급수 운반 등 도서 지역 가뭄 대응 총력

해수 담수화 신설 및 운반 급수, 지하수 저류 댐 가동

최근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노화읍 냇도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완도군에서는 피해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22일 가뭄 '관심' 단계에 돌입한 노화읍 냇도의 경우 해수담수화 신설과 동시에 저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운반 급수를 시작해 취수량을 일부 확보하며 가뭄 단계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기존 보길면 부항제 저수율 하락으로 인해 지하 저류 댐 가동과 운반 급수를 병행해 용수를 공급했다. 운반 급수는 부항제 물 사용량과 저류 댐 송수량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행 중이며, 호우 예보에 따라 운영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길도 지하수 저류 댐은 93,020m³(일 평균 1,163m³)의 물을 부항제에 공급 중이며, 송수관로 개량 및 강수에 따라 일 최대 3,900m³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물은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37일간(일 2,500m³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보길도 지하수 저류 댐은 지난 2023년에도 설치됐으며 지표면 아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상승시킴으로써 가뭄에도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소안도와 청산도에 추

가로 저류 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안도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리적 한계로 안정적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5년부터 고금면 소재지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준공했다. 국·도비 포함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금면 농성리, 영부리, 석치리, 일덕암리에 각각 5톤 용량의 LPG 저장 탱크와 지하 공급 배관(14km)을 설치했다. 아울러 총 393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교체 및 가스 자동 차단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우덕현 기자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역명 의견수렴 완료했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 의견수렴이 마무리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8개 정거장의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에 참여자 1만3779명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국어원에 로마자·한자 표기 지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종 역명은 6월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광주온(ON)'과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광주온(ON)을 통한 온라인 설문에는 1만1293명이,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에는 2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2486명이 참여, 총 참여자 수가 1만3779명을 기록했다. 특히 시민정책참여단 온라인 참여율은 25.5%로 올해 평균 참여율인 15%를 크게 웃돌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감을 증명했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지역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역명으로는 201정거장 '시청역'(58%), 207정거장 '월덕역'(86%), 215정거장 '조선대역'(86%), 218정거장 '광주교대역'(72%), 219정거

장 '광주역'(73%)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부 정거장은 역명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238정거장 '유덕역'(40%)과 '버들마을역'(39%), 202정거장 '치평역'(37%)과 '상무지구역'(32%), 208정거장 '풍암호수공원역'(50%)과 '풍암역'(42%)은 10% 이내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여자 1만3779명이라는 숫자가 도시철도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보내주시는 의견을 잘 반영해 역명을 결정하겠다"며 "지역 현인들이 차질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권일 기자

## 순천만,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 운영한다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봄의 시작과 함께 흑두루미 북상시기에 맞춰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순천만에는 약 8,600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찾아왔으며, 현재 약 1,800여 마리가 머물고 있다.

이들은 3월 말 번식지를 향해 대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순천만 람사르지는 3월 말이면 벗꽃이 피어나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대표 봄 명소로, 이 시기 흑두루미의 북상과 맞물려 특별한 풍경을 연출

한다. 방문객들은 벗꽃길을 따라 걸으며 올해 마지막 흑두루미를 관찰하면서 계절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

시는 흑두루미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전에야 프로그램인 ▲흑두루미 배웅 탐조 ▲흑두루미 뱀씨 나누기는 흑두루미를 관찰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더한다. 현장에서는 ▲흑두루미 솟대 만들기 ▲흑두루미 카드 엮서 만들기 ▲흑두루

미에게 보내는 편지 ▲갈대 '복' 빗자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흑두루미의 생태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벗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아름다움과 생태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은 주말에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운영되며, 사전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선암사의 겹벚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4월 한 달간, 순천의 눈부신 봄 풍경과 전통 차(茶) 문화를 결합한 기획 투어 '차(茶)오르는 봄'을 운영한다.

투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천연기념물 선암사로 이름난 선암사를 배경으로 기획했다. 예약 및 상세 정보 확인은 순천시 누리집 '바로예약' 또는 예로관광을 통해 가능하다.

우덕현 기자

## 남원시,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의원, 약국 등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만든 스마트복지거점...협력과 상생의 결실



남원시는 지난 19일 아영면 울동경로당(비대면진료 거점경로당)에서 어르신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하고, 스마트경로당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경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비대면진료 운영 모습을 직접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준공식은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관내 경로당에도 실시간 송출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기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여가복지, 소통 지원을 강화한 복합 복지공간이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보다 편

리하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경과보고와 함께 실제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어르신 인터뷰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시연을 통해 스마트경로당이 지역 돌봄과 공공의료를 연결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남원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의원과 약국 등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경로당에도 실시간 송출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이날 준공식은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스마트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관내 경로당에도 실시간 송출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보다 편

한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그동안 함께 주신 의료기관과 수행사, 관계 부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과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 디지털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복지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과 민간예술단체 '유정연'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3월 16일 심의를 통해 도내 15개 신청 단체 중 8개 단체를 최종 확정했으며, 남원시에서는 청아원과 유정연이 이름을 올려 도비 7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정연은 남원 지역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연희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보일 주요 프로그램은 ▲창작 공연 '남원 재주꾼 모 집공고'(1회) ▲우수 레퍼토리 공연 '광학루원에 피어난 연화꽃'(1회), '빛나는 밤에 청연'(1회) 등이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땀땀! 예술이 도착했습니다'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신승민 기자

## 장수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실시

농가 190명 대상,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 이해 제고



장수군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고용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장수군은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관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에 더해 베트남, 라오스와의 MOU 체결을 통해 총 5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38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부족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장수군은 입국 이후 1:1로 농가 방문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이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인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주 기자

## 시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읍 격 없는 소통

정읍시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19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 한 끼를 나누며 공식 생활의 고충과 진솔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현장소통 간담회 '브런치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제 막 공직에 들어와 낯선 환경을 마주한 저연차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공감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인성 선배이자 공식 선배인 시장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고 격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편안한 식사 자리로 꾸며진 이날 행

사에서 신규 직원들은 평소 공식 생활에 대해 품고 있던 궁금증부터 개인적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질문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이학수 시장 역시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진솔한 답변을 이어가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끌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소회는 물론 선배 공직자에게 구하는 애정 어린 인생 조언까지 오가며 유대감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리 정읍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들과 격이 없이 마주 앉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무척 뜻깊었

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조직에 즐겁게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건강한 공식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읍시가 한우 농가의 번식 효율을 높이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최소 28일 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임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6120개의 진단 키트를 확보해 지역 내 한우 농가에 보급하며,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당 최대 30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미 기자